

같이, 가치 설날은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 잔치 이루기

김도현, 박소윤, 이수인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 잔치 이루기

차례

1. 머리말
2. 수료사
3. 사업 소개
4. 실천 이야기
5. 사업 평가
6. 맺음말
7. 부록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 잔치 이루기

머리말

아주 힘들고 괴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혹은 사무치게 외로워서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누군가의 따뜻한 공감과 위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눈물을 닦아 본 경험 또한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확고해져 가는 신념이 있다면,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헤쳐나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주 아주 오래전 동굴에서 수렵과 채집을 이용해 살았던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건을 당일 배송받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내 집에 홀로 있다고 한들 얇은 벽 너머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쓰는 모든 물건에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한 늑대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기에 무리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줍니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한자로 쓰면 ‘人’(사람인)이 됩니다. 왜 이렇게 쓰는가 살펴보니,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데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에게 기대는 형상을 본떴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닫고, 고독한 늑대를 자처합니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표독해져서 타인을 배척하고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궁지에 몰았는지,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잃어버리는 데에는 사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과 손실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더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 함께 놀고 싶은 사람도 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복지관에서 실시한 주민 만나기에서도 이웃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이웃과 함께 활동하고 싶은 희망을 내비칩니다. 이럴 때를 위해 복지관이 존재합니다. 주민들 간의 만남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줍니다. 직접 주민분들과의 관계에 뛰어 들고, 대화를 나눕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놀고 싶은지를 들어야 합니다. 아예 주민들을 기획 단계에 끌어들여 같이 만들어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함께 공통의 목표를 향하는 것. 우리는 이미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설날이라는 좋은 구실도 있겠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며 설날맞이 잔치를 기획했습니다. 윗놀이로 분위기를 달구고, 다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를 만듭니다.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탄식이, 가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지만 그게 잔치이자 공동체입니다. 한자리에 모여 웃고 울며 노는 것,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수료사

김도현 실습생

실습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실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습을 신청할 때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 제발 붙기를 희망했는데 벌써 복지관에서 실습을 마무리 하면서 수료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습의 첫날이 생각이 납니다. 복지관에 처음 방문했을 때 어색함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료 실습생과 첫 만남에서도 서로 어색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습을 진행하는 동료인 만큼 서로 대화하고 같이 워크숍도 진행하고 단기사회사업도 진행하면서 첫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 동료 실습생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료사를 빌려 동료 실습생에게 많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실습을 되돌아보면서 복지 요결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사람다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습 첫날에 읽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나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삶의 주인과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의 의미인 사람다움'은 사회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 요결을 읽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습은 주민 만나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장수식당에서도, 경로당에서도 복도를 지나 가는 중에도 항상 주민을 만나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초반에는 주민과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주민들도 다정하게 맞이해주셔서 주민 만나기를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주민들의 희망을 파악하고 사업을 함께 구상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에게 주민 만나기는 실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한 것이 생각납니다.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노력을 생각하면서 사업 당일에 무사히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사업 당일에 주민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엄청난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진행하기 위해 첫 운을 떼고 웃음을 진행하면서 많은 힘을 소모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주민들이 재밌어하시고 서로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업 후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힘들었지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혼자서 생각한 사업이 아닌 주민분들과 함께 이룬 사업이라서 더욱 애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됩니다. 실습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실습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려던 복지관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던 박소윤 실습생, 창의력을 보여주던 이수인 실습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실습을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더욱 배울 수 있고 의미 있던 실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배움과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습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실습의 끝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료사

박소윤 실습생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많은 도전을 했고, 그에 따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부터 성덕동에서 살아오면서 강릉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다니고 있지만, 1학년 때부터 나중에 실습을 나가게 된다면 강릉에 있는 종합 복지관에서 할 것이다 다짐했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3학년이 되었고,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매일 같이 들락날락하며 실습 모집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면접날이 되었고, 슈퍼바이저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에 사로잡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라고 대답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실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바쁘게 학교생활을 하던 도중, 실습 면접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 중,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습 첫날을 기대하며 얼른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동료 실습생들과 첫 만남이 생각납니다. 서로 어색한 나머지 하루 이틀 정도는 대화도 잘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손에 땀이 납니다. 함께 복지요절을 읽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단기 사회사업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전우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에 정이 느껴집니다. 실습하면서 동료 실습생들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서로의 생각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쓴 실습일지도 공유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도, 각자가 느낀 점, 배운 점, 다짐한 점이 달랐습니다. 동료 실습생들의 일지가 그날의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놓쳤던 부분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주민분들과 함께 단기 사회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주민분들을 처음 만나러 나갔을 때, 두려워하고 긴장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야기 나누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복지요절에서 배운 대로, 슈퍼바이저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지내다 보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분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함께 사회사업하고 싶다고, 사람들과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고요. 이렇게만 했더니 사회사업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주민들과 나눈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웃고, 맛있는 음식 나눠먹고... 이것만큼 행복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지나가면서 응원의 목소리 내주신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모든 사회복지사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듣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실습한

동료 실습생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옆에서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던 실습생 김도현, 풍부한 표현력으로 매 순간 놀라움을 주던 실습생 이수인, 덕분에 즐겁게 실습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끝마무리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저희의 사회사업 이야기를 기록하며 실습을 잘 끝내보려 합니다.

수료사

이수인 실습생

실습의 끝이 보입니다. 첫 시작보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역시 끝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엇그제 실습을 시작한 것만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 실습의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3주간의 시간이 그야말로 쏠살같이 지나간 느낌입니다. 겹도 많이 먹고, 뻗뻗하게 굳어서 면접을 봤던 저 자신을 생각하니 너무 생경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 이렇게 실습을 무사히 마쳐 수료사를 적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거나 했을까요? 시간이라는 것은 아직도 알 듯 말 듯 어렵고 요상합니다. 보통 즐거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힘든 시간은 느리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이 모든 경험을 돌아봤을 때는 즐거운 순간도 괴로운 순간도 그저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번 4주간의 실습은 즐겁기도,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이 생각납니다. 동료 실습생들과 어색해서 아무 말도 못 했던 그 이틀간, 모든 게 낯설어 기합이 바짝 들어갔던 첫 주, 노트를 손에 꼭 쥐고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필기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잼싸게 받아 적는 내 모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위로 동료 실습생들과 드디어 말을 놓고,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순간과 적응이 많이 되어 실습생 공간에 들어 오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필기한 노트를 훑어보며 내가 이런 순간들을 겪어왔구나! 체감하는 순간까지 겹쳐 보이며 정말 알찬 4주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습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복지관에 처음 발을 디뎠던 저와 지금 수료사를 작성하고 있는 저 사이에는 아주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여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업무란 이런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써야 한다.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주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또 단기사회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 덕에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번 사업은 주민의 힘이 없었다면 무사히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부터 후원자님과 도움을 주신 여러 주민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가 보면 웃을 정도로 서툰데 미숙한 저희였지만, 그 덕에 여러 주민분이 더 관심을 두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직도 단기사회사업 당일의 긴장감이 기억납니다. 너무紧张해서 오전에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꼭 발표하기 30분 전처럼 손에 땀도 뺨도 뻘뻘 배어 나왔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갔을 때의 그 후끈한 온기, 주민분들이 배곡히 앉아계신 것을 확인했을 때의 당황감, 어떻게 진행의 운을 띄워야 할지 모를 지경이던 그 막막함과 웃놀이를 할 때 느꼈던 열정과 안도감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의 단조로운 인생에서 정말 큰 도전이자 사건이었습니다. 무사히 사업을 마치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실 때의 후련함,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경험이 처음이었다는 소리를 하면 누군가는 과장하지 말라고 한소리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긴장했지만, 또 엄청 아쉬운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 없이 사업을 끝마쳤다는 것이 제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첫 실습이 끝나갑니다. 설렘과 긴장감, 좌절과 회복을 겪으며 제 안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저희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려 노력하신 복지관 직원분들, 똑 부러지는 정리로 항상 큰 수고를 해주었던 박소운 실습생, 타고난 입담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해준 김도현 실습생, 그리고 사업에 있어 폐도 많이 끼치고, 도움도 많이 받은 경로당 회장님 등등 도움을 주고받은 얼굴들이 한둘씩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귀중한 인연을 쌓았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지식을 얻고 갑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 잔치 이루기

‘같이, 가치 설날은’ 사업 소개

사업 필요성

같이, 가치 설날은 사업이란?

‘같이, 가치 설날’ 사업은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 잔치를 구상하고 참여하며 주민 협력을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지역 주민이 명절 잔치를 기획하고 직접 기획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이 명절 잔치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만나는 주제로 명절 잔치 사업을 실천하여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약화

2023년 레가툼 반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07위로 종합 순위 29위에 비해 크게 뒤처졌으며 2013년 대비 3순위 하락했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며, 공동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¹⁾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지역사회 소속감’이 행정구역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릉시 사회조사에서도 ‘서로를 잘 안다.’ 지표가 2020년 2.91점에서 2.58점으로 감소했습니다.²⁾

이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렌드모니터의 2023년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이 한국 사회 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86.3%),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2년 79.7%→2023년 86.3%).³⁾

지역주민의 고립감과 외로움

본 복지관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주민 욕구 조사(마주하다)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을 1·2순위 통합으로 조사한 결과, ‘어려움 없음’을 제외하면 ‘신체적 문제’(85명, 34%)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외로움 및 고독감’(46명, 9.2%)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본 복지관이 위치한 성덕동(44명, 25.6%)에서는 ‘이웃 없음’을 선택한 비중이 다른 동네(8명, 10.3%)보다 약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 복지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두드러지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김가람 기자. (2023. 4. 9.), 한경연, 한경연, ‘2023 레가툼 반영지수’ 분석… “신뢰 회복 개선해야”, 한국경제금융신문,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671>

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3) 트렌드모니터, (2023, 5) 더 복잡하고 심각한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729&trendType=CKOREA>

이웃과 만나고 싶은 주민들

트렌드모니터의 2022년 이웃 및 동네(지역사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⁴⁾ 대다수 사람이 '동네 친구' 한두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82.3%),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강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복지관의 2023년 지역 주민 욕구 조사(마주하다)에서는 이웃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같은 재미나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56.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본 복지관에서 시행한 2022년 지역 주민 욕구 조사에 따르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의 역할로 '이웃을 나눌 기회 조성'(37.5%)과 '이웃과 함께할 활동 제안'(27.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이웃과의 교류를 원하는 욕구가 있으며, 복지관이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역공동체 강화: '마을 잔치 함께하기'

마을 축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긍심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⁵⁾

또한, 마을 축제는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부심과 마을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주민 의식을 갖고 스스로 고민하며 참여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⁶⁾

이에 따라, 공동체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추진할 때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 요결에 따르면, 마을에는 이웃과 인정이 있어야 하며, 복지는 이웃 관계와 소통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공동체 참여가 절실하며, 이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으로 마음을 나누는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회다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4) 트렌드모니터 (2022, 5) 희미해진 '이웃사촌', 사라진 '우리동네' "지역 공동체보다 삶의 편의성이 더 중요해".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412&trendType=CKOREA>

5) 김정환 교수. (2018. 10. 18.). "마을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긍심 표현". 정책 주간지 K공감.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

6) 한상현. (2015).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pp. 75-87). 정책연구보고서.

사업 개요

사업명

같이, 가치 설날은

사업 목적

잔치를 구실로 우리 단지 주민들의 정을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산출목표 대비 평가

사업명	실인원			연인원			건		
	목표	실인원	(%)	목표	연인원	(%)	목표	건	(%)
“같이, 가치 설날은”	10	8	80	10	8	80	1	1	100
총계	10	8	80	10	8	80	1	1	100

성과목표 대비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달성여부
잔치를 구실로 우리 단지 주민들의 정을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가) 사업 제안 시 느낀 점 나) 사업 기획을 통해 느낀 점 다) 활동 참여 소감 (강점, 아쉬운 점, 향후 계획 등) 라) 사업 기획, 진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	① 인터뷰 ② 평가회의	목표대비 사후분석 (인터뷰 평가)	달성

평가 내용

사업 제안 시 느낀 점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기획 제안에 당황했지만, 원하는 활동을 직접 기획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주민들이 기획한 활동으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낸 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업 기획을 통해 느낀 점

주민들끼리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 보고 싶었던 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활동 참여 소감

모두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어 좋으셨다고 했으며 앞으로 경로당에서 유사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모두 그렇다고 응답하셨으며 다음 활동에서는 노래 자랑을 제안하는 등 다음 사업 참여에 대해 희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주민 중 한 명이 이러한 활동이 있는 줄 알았다면 본인도 같이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얘기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나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명절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웃 관계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이웃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으며, 예전에는 모임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모임이 더욱 좋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사업 기획, 활동 과정에 대한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

사업 기획 과정에서 주민들은 원하는 활동과 진행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활동 진행 과정에서 윗놀이 규칙을 주민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며 조율하고 팀을 구성할 때도 팀명을 새로 정하는 등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사업 진행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내용

일정: 2025. 1. 22.(수)

장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1층, 입암 3주공 경로당

대상: 강릉시 지역주민 10명

사업내용: 옷놀이, 설날 잔치

추진일정

구분	시기	내용
사전	주민 만남	1. 10.(금)~1. 14.(화) ① 주민들과 대화 ② 경로당 방문 ③ 마을활동가와 대화
	사업계획 및 사업 준비	1. 14.(화)~1. 21.(화) ① 사업계획서 작성 ② 사업 일정 세우기 ③ 역할 나누기 ④ 물품 구매 일정 세우기 ⑤ 준비물 정하기 ⑥ 복지관 안의 사업 물품 알아보기 ⑦ 홍보 포스터 만들기 ⑧ 사업 물품 구매 및 준비 ⑨ 설날 맞이 장식품 만들기 ⑩ 경로당 장소 꾸미기
진행	“같이, 가치 설날은”	1. 22.(수) ① 경로당 주민들 만나기 ② 설날 맞이 옷놀이 ③ 잔치하기 ④ 활동 마무리 ⑤ 활동 소감 나누기
사후	평가회의	1. 31.(금) 잔치 소감 나누기

진행방식

사업 진행 과정은 주민 만남, 사업계획 및 준비, 사업 진행, 평가 회의, 감사 인사, 그리고 결과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주민 만남 단계에서 장수식당 이용자와 대화하며 당사자들을 헤아려봅니다. 식당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는 경로당 회장님이 계셔서 먼저, 경로당에 방문하여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묻고, 함께하기를 제안합니다. 설날을 구실로 잔치하기로 논의합니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각자 준비해야 하는 요소를 고민합니다. 실습생이 직접 모두 정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같이 정합니다. 경로당의 다른 어르신과도 대화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듣습니다. 이와 함께, 활동 경험이 풍부한 마을활동가도 만나 수행 경험에 대한 조언을 듣고,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역할을 분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품 구매 일정을 정하고 상품을 구상하며, 복지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또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경로당에 부착하여 홍보합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로당으로 이동하여 인사를 나누고 분위기를 조성한 후 설날 맞이 웃놀이를 진행합니다. 웃놀이는 팀별 경기로 이루어지며, 활동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더욱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잔치 중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각자 챙겨온 먹거리를 나눕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주민들과 함께 활동 소감을 나누며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후 평가 회의 단계에서는 경로당 회장 및 주민들과 함께 소감을 나누고, 감사한 점과 아쉬운 점을 공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감사 인사 단계에서는 사업에 도움을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감사 말씀을 전달하며, 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활동 소감 및 평가 회의에서는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습니다.

- 1) 실습생들이 잔치 기획을 제안했을 때 어떠셨어요?
- 2) 잔치를 기획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 3) 기획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4) 잔치를 진행해보고 나니 어떠신가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기억에 남는 점 등)
- 5) 잔치를 해보니 어떠셨나요?
- 6) 다음에도 잔치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나요?
- 7) 다음에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 8)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한다면 이웃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 잔치 이루기

실천 이야기

복지 요결 공부 “단기 사회사업의 시작”

복지 요결은 사회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사업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 함께 복지요결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회사업의 근본부터, 가치, 철학, 방법, 기록... 사회사업을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 짓는 과정까지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복지요결을 통해 사회사업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 당사자와 지역사회 옆에서 함께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복지요결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사회사업의 가치입니다. 사회사업의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당사자의 자주성은 사람은 삶의 주인이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뜻하고, 지역사회 공생성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실제로 더불어 살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주성은 주체 의식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주체 의식은 자신이 주체라는 의식과 생각, 내면의 속성이지만 자주성은 실제로 주인 되는 현상적 속성입니다. 공생성은 공동체 의식과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은 더불어 살려는 생각과 마음, 내면의 속성이지만 공생성은 실제로 더불어 사는 현상적 속성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잘 구분하고, 뜻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사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묻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묻고 의논하지 않으면 자주성과 공생성이 무슨 소용일까요. 복지 요결 읽으면 읽을수록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사와 묻고 의논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당사자와 함께하고자 복지요결을 열심히 읽으며 주민들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인사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해 옹호 협력 늘어나고 오해 비난 견제 멀어집니다. 일이 술술 풀립니다. 인사 다니다 보면 사람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지고 살려 쓸 강점이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고 지역사회의 정서와 문화를 알게 되고 처신할 바를 알게 됩니다. 인사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인사 다니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사회사업 실마리이고 밑천입니다. 사회사업하는 지혜 열정 저력 자신감 여유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경험, 무엇인가 이루어 내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이 살아납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저력이 되고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남을 돕는 경험, 그로써 약자를 이해하게 되고 함께하거나 돕는 요령이 생깁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살아납니다. 이는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기쁨 재미 보람 감동 사람 사는 맛이 생깁니다.

복지요결을 읽고, 당사자와 인사하고 논의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의 반을 넘는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이해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인사만으로 사회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사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다음 만남 때는 그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관계가 생기고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 합니다. 인사는 사회사업의 시작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대신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복지 대행업자’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는 거드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앞세우고 뒤에서 보조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고 부족한 만큼 보조합니다. 당사자가 주연인 무대에 사회사업가가 잠시 등장할 수는 있으나 대개 단역으로도 족합니다. 조연이랄 것도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당사자가 얻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얻어다 주는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얻어다 준다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가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사회가 당사자에게 직접 주게 합니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전달자나 배달꾼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고기는 얻어다 주거나 받아서 전달하기보다 당사자가 얻게 하고 지역사회가 주게 합니다. 고기 잡는 법은 직접 또는 교육 사업으로 가르쳐 주기보다 당사자가 배우게 하고 지역사회가 가르쳐 주게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옆에서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선하고 거들고자 했습니다. 사회사업을 통해 주민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묻고 의논하며 사회사업했습니다. 복지요결을 읽으면서, 사회사업은 무엇이며 사회사업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게 돕고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를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사회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지역 조직화 사업 OT “함께 한다는 건”

주민 조직화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단기 사회사업 사례집을 찾아보면서 코로나-19 때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어 우울감을 느끼거나 둘레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주민들이 주민 조직화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담당 슈퍼바이저께서 사회복지사는 주민이 스스로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유지하는 협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발성과 열정이며 앞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유지해줄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은, 주민 조직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부분 이유로, 당사자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낯설어하여서 조직화 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이유로는, 배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을 집으로 가져다주는 사업은 그들을 집 안에 더욱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제공 중심의 사업은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당사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습으로 저희는 당사자의 강점에 중점을 두고 옆에서 돕고자 합니다.

주민 조직화 사업에 대해 듣기 전에, 실습생들이 생각하는 주민 조직화 활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연계하고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통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 “주민들이 서로 친해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민 조직화는 정해진 틀이나 형식 없이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민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갈 수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연결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이웃과 인정이 있는 동네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있을 겁니다.

비전 및 강점 워크숍 “우리의 약속”

실습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천 방법에 대한 비전 워크숍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실습생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를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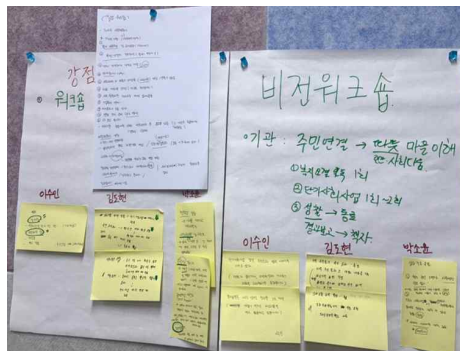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때 도움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목표로 잡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기록하며 그 안에서 주민들의 힘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사회사업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당사자와 지역 사회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동료 실습생들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복지 요결을 공부한 기록 노트 제작하기, 주민들과 신뢰 쌓기 등의 공통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실습 목표와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고 구체화하여 앞으로의 실습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복지 요결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 현장에 적용해 보고 싶은 것, 깨달은 점을 기록하고 복습하고자 합니다. 주민들과 만날 계획도 세워봅니다. 우선, 밖으로 무작정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복지요결에서 읽은 대로 주민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다가갑니다. 인사하고 지내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봅니다.

강점 워크숍은 기관의 강점(자원)과 실습생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강점을 적어보고 공유했습니다. 먼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2025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사회사업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기관들과 상호작용이 잘 되어있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복지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원봉사자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을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질문해 보려 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리 주민들, 재능기부 해주시는 강사님들, 한끼드림 봉사자, 주거복지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실습생 각자가 자신의 강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연결 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재무 회계나 네트워크 구축,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어렵게만 보였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습생 모두가 고민에 빠져있자, 슈퍼바이저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강점을 찾아야 당사자와 지역사회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게 많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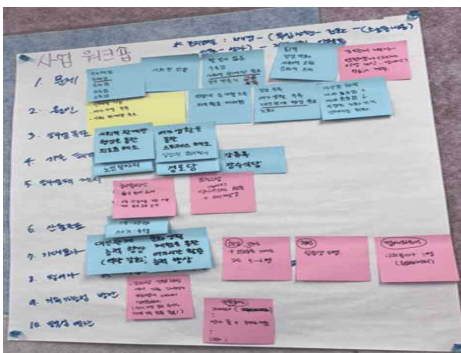


사업 워크숍 “시작이 반이다”

본격적인 단기사회사업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실습생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난 시간 동안 고민하며 찾아본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활동은 무엇이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첫머리를 열 문제의식은 복지관 이용자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일이 적다는 인터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사회적 관계망 부족과 여가생활의 부재로 노인분들이 밖에 나와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여가생활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일상의 활기를 찾는 것을 이번 단기사회사업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공통의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즐겁게 사진을 찍고, 사진을 넣을 액자를 직접 꾸미면서 서로 얘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희의 단기사회사업 주제는 사진을 찍고, 액자를 꾸며 선물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왜 사진이어야만 하는지, 혹은 사진 찍기가 너무 단순한 활동은 아닌지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고 앨범 만들기 자리에 달력 만들기를 넣어도 되고, 쿠키 만들기를 넣어도 말은 됩니다.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드는 이유는 어르신들끼리 모여앉아 서로 이야기하며 친목을 다져서 결국엔 서로서로 긍정적인 사회관계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사진 찍고 앨범 만들기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동료들과 힘을 합쳐 사업의 방향성을 다잡고 수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와 보니, 상황에 따라 배운 이론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뒤에서 지지하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다진 이론을 발판삼아 실제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술들을 더 배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만나기 “함께 하실래요?”

주민 만나기 계획 “떨리는 마음”

주민을 만나기 전, 어떻게 먼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슈퍼바이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동료들끼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무작정 나가 인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왜 복지관에 왔는지 명찰을 보여주며 실습을 하러 온 학생들이라는 인상을 남겨줍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만 잘하면 일단 경계심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가벼운 질문부터 던져봅니다.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오시는 길 출지는 않으셨는지 대답하기 쉬운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식사를 기다리시는 중이시냐, 식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집에 가시는 거냐는 등의 활동에 대한 질문 전 예열을 합니다. 만약 일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일정에 관해 묻고, 없다고 하신다면 집에 돌아가셨을 때 상황을 가정해 질문합니다.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적어 봤습니다. 집에 계실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부터 말 머리를 열어 TV를 보신다는 대답이 나오면 요즘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TV를 보지 않으실 때는 다른 활동을 하시는지를 묻습니다. 만약 집에서 별일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신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그때 심심하시지는 않으신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와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렇게 여가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시간이 남을 때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데 만약 복지관에서 주민분들을 모아 그런 시간을 만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 사이사이에도 어떤 활동을 선호하시는지 참여하셨던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넣어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과 첫 만남(장수식당 앞)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오기 전, 장수식당을 기다리는 어르신분들이 복도에 앉아계셨습니다. 슈퍼바이저께서 지금 시간에 잠깐 나가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을 앞두고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일단 한 명씩 인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작전은 긴장한 모습을 최대한 보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습생 세 명이 한꺼번에 가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어, 두 명씩 편을 먹고 인사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줄로 앉아계시던 어르신 세 분이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나누던 인사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장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르신분들 모두 곧 식사하셔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과 배식을 담당하시는 봉사자들로 혼잡한 복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을 수가 없을 거 같아 대화를 오래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

급하게 가다 보니 일단 가서 인사를 하다 보니 우르르 몰려가서 인사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는커녕 짧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수식당 자원봉사자들과도 인사를 몇 차례 더 나누었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신지 여쭙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니 선생님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필기와 실기를 보았고,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현재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꾸고 있으므로 선생님님이 멋있었고,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대화를 나눠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실습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저희는 복지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배우고, 단기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볼지 고민 중이에요. 만들기 활동할지 고민 중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라고 여쭙어보니,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걱정과 두려움만 있고 인사조차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짧지만, 대화까지 나누었다는 게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복지요결에서 읽었던 사회사업의 방법 중 인사하고 묻고 경청, 의논, 감사하는 활동을 직접 해 보았다는 게 좋았습니다. 항상 이 방법들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실습 슈퍼바이저께서 주민 만날 때 무작정 많이 만나보는 것도 좋지만, 망원경 주민들(잠재적 주민 리더)을 위주로 만나보고 대화한다면 묻고 논의하고 부탁하는 과정을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주셨습니다. 서둘러 다음 주민을 만날 계획을 세워 봅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시작입니다. 일단 나가서 얼굴을 비추고, 눈이 마주치면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생각보다 긴장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앉아계신 모든 분이 인사를 잘 받아주셨고 대화에 응해주셨습니다. 한번 해보니 자신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주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회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없어도 점심시간에 슬쩍 나가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슈퍼바이저께서 하셨던 말이 드디어 외닿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화에 다다르려면 아직 멀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남은 실습 동안 더욱 자신감 있게 주민분들께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할 시간이 기대됩니다.

경로당 회장님과 첫 대화 “저희와 같이 하실래요?”

사회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주 모여 있다는 경로당에 찾아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경로당 회장님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 묻고 부탁해보려 합니다. 경로당 안에 회장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시면서 어떤 일로 찾아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이번에 실습하면서 어르신들이랑 재밌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궁금한 것들 여쭙보려고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경로당에 매일 계시는 어르신분들은 2~30명 정도 있고 보통 장수식당에서 식사하시고 12시부터 2시까지 커피를 드시거나 대화 나누러 오신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점심시간 끝나고 하는 게 좋을까요?’하고 여쭙보니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모여 계셔서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활동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여쭙보니 노래 부르거나 만들기 활동도 자주 해서 손으로 하는 활동 하면 재밌어하실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본 활동 중에 사진을 찍고 액자를 만드는 게 있어서 제안을 해보니, 평소 회장님께서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도 많이 찍고 전시도 하므로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프로그램도 어르신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열심히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잔치 날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회장님께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오라고 할게요.’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라는 말씀에 실습생 모두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 뒤 대화를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실습 슈퍼바이저께서 대화 후에 생긴 여러 가지 고민을 안에서 혼자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과 나는 대화를 바탕으로 2차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다음 주에 경로당에 다시 가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장수식당 주민 만나기 “즐거운 점심시간”

점심시간 전, 장수식당에 식사하러 오신 주민분들의 얼굴을 익히고, 봉사자분들과 요양보호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장수식당 배식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식당에 들어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건도 들었습니다. 완전무장을 하고 나서,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주민분들이 식당에 들어와 자리를 하나둘씩 채워나가 쉽니다. 몇몇 분들은 배식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배식이 시작되고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배식 하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으려나?”라고 했던 생각이 무색하게 배식이 시작되자마자 눈앞에 식판을 채우고 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만큼 장수식당이 인기가 많고, 주민분들을 위해 빠르고 신속하게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배식이 끝나고는 행주를 들고 주민분들이 드시고 난 자리를 닦았습니다. 이때는 조금 여유가 생겨 주민분들의 얼굴을 천천히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전에 봤던 얼굴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주칠 주민분들의 얼굴이니 최대한 많이 보고 외워둬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 식당 앞에서 처음으로 대화했었던 어르신이 식당에 나타났을 때는 내심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고 인사 대신 미소를 지었는데 과연 저를 알아보셨는지 의문입니다.

실습 2주 차의 시작입니다. 경로 식당에서 얼굴을 아는 어르신을 발견했듯이 앞으로 더 많은 주민분과 만나고 대화하며 주민분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경로당 두 번째 방문 “웃놀이나 한 판 해볼까?”

단기사회사업 주제를 정하기 위해 경로당에 방문했습니다. 주제를 미리 정해둔 만남이었고, 낮을 가리느라 여러모로 아쉬웠던 첫 번째 만남을 교훈 삼아 이번엔 최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설날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평소에 어떤 활동에 참여도가 높았는지를 여쭙볼 계획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토대 삼아 가지를 뺀듯 세부적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회장님이 거실에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번에 주민분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실 때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회장님과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거실에 다 같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에 훨씬 활기가 돌고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만남 때보다 분위기도 더 좋았고, 대화의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설날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놀아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다음엔 어르신들이 설날을 맞아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웃놀이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웃놀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셨고 웃놀이를 주제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팀을 짜거나, 상품에 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간식에 관해 얘기를 할 때는 떡을 드시고 싶으시다 하며 특히 기정 떡은 입을 모아 싫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 납니다. 이런 소소한 요소들도 주민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다면 모를 뻔했던 내용입니다.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드렸습니다. 만들기 활동 중 그림 그리기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 미리 밑그림이 그려진 종이에 색을 칠하는 색칠하기를 자주 하시고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갑게 배웅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뒤로하고 대화 내용을 정리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눠서 머리는 복잡했지만,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하고 뭘 물어봐야 하는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장수식당 자원봉사자와 대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점심을 먹고 난 뒤, 봉사자 중 한 분과 식당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게 궁금한지 먼저 물어봐 주셔서 설날 기념으로 어르신들과 옛날에 자주 했던 놀이를 주제로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지 제안 드려봤습니다. 봉사자께서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할 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들이 있지만, 가만히 계시거나 주춤거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게임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욱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방안으로 식당 운영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다수가 좋아하는 활동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또한, 어르신분들은 노래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노래와 가수를 좋아하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질문 리스트에 적어보았습니다.

맨 처음 질문드렸던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 마음을 점점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과정은 꾸준히 해야 하고 직접 부딪히며 스스로 터득해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이론을 똑같이 적용하지 못하듯, 여러 주민과 관계를 맺을 때도 각자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므로 유동적인 자세를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 경험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사자께서 장애인 시설과 농아시설,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시설에서 처음 봉사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당사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항상 행복했고 그게 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였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쌓아가면서 아동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고 찾아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교감을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실습 슈퍼바이저께서 조희 시간에 말씀해주신 것 중 공감은 상호작용하는 것,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하며 그 속에서 주민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떠오르면서 또 한 번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 지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성함을 여쭙았는데 내일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곤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음 만남이 벌써 기다려지는 마무리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덕분에 자신감도 얻고 사업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드린 뒤 대화를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주민과 대화를 오래 나눈 게 처음이라 긴장했었는데, 자원봉사자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자원봉사자처럼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배울 것입니다.

마을관리소 방문, 마을활동가과 만남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활동은...”

강남동에 있는 마을관리소에 다녀왔습니다. 마을관리소는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들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공구랑 휠체어 등 필요한 물품을 빌려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주민들이 프로그램한 뒤 소감, 의견을 적어 놓은 보드도 있었습니다. 활동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글을 읽고 잠깐이나마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슈퍼바이저께서는 마을활동가께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묻고 의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부탁하셨습니다.

마을활동가께서 들어오시고, 자기소개와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있었는지 여쭙보니,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만들기 활동을 하고 가져가는 게 있으시면 제일 좋아하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색다른 활동으로는 LED 조명 관련 만들기 활동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마을활동가의 대처 방법을 여쭙보니, 마을활동가께서 어르신들이 서로 양보하실 수 있게 양해를 구하거나, 게임을 하는 상황이면 점수를 똑같이 드리는 방법으로 중재를 하시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의논을 통해 웃놀이라는 주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웃놀이하다가 점수를 매기기 모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수를 똑같이 주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웃놀이는 서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을활동가 덕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묻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경로당 세 번째 방문 “저희 또 왔어요!”

경로당에 세 번째 방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을 지나 세 번째 만남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편안해진 기분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과 지난번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간식은 모두가 함께 준비해보고자 했고, 만들기 대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자랑 같은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자랑을 하면 따로 준비도 쉽지만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패가 갈리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기를 원하고,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가 중점이 되어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획할 프로그램은 설날 맞이 율놀이와 노래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함께 맞춰나가는 과정”

경로당에 마지막으로 방문해 단기사회사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해볼 계획이었습니다. 질문지를 두 손에 꼭 들고, 슈퍼바이저께 부탁해 나눠드릴 비타민이 가득 든 상자도 가지고 갔습니다. 몇 시간 전 제가 내려가 오늘 두 시에 약속을 잡았을 때 바빠 보이는 모습을 보고 바로 동료 실습생들과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무작정 찾아가자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작정 만나볼 수도 있지만, 당사자를 초대할 수도 있고, 주민의 입장을 더 헤아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교육을 듣고 경로당으로 내려갔지만, 주민분들이 각자 해야 할 일로 바쁘게 움직이시고, 다음에 오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어안이 병병해진 채로 보람실로 올라왔습니다. 주민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 대화 나눌 시간이 되시는지, 하던 일은 마무리되었는지 깊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보람실로 돌아온 저희는 방금 전 만남에 대해 공통의 의견은 저희가 너무 자주 방문했고, 매일매일 방문해서 부담스럽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주민분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고, 아직 미숙한 실습생이라 대화를 하면서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일이 매우 바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느끼며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를 침묵 속에서 수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로당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온 실습 슈퍼바이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풀이 죽은 저희를 위로해주시며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의 자세입니다. 저희는 야심 차게 준비한 질문들을 종이에 적었는데, 혹시 그 질문들을 잊어버릴까 봐 종이나 노트를 가지고 갔던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하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종이나 노트를 사용하지 않듯이 주민분들과의 대화에서도 일반적인 대화를 해야 했는데, 저희가 하던 대화 방식은 취조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세 명이 몰려가서, 종이를 보고 정해진 질문을 하는 게 일반적인 대화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미리 해야 했는데,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그 점을 놓친 것 같았습니다.

또 예산에 관해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를 강조했던 것이 주민분들에게 강요로 느껴지고 그로 인해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민의 상황에 맞춰 공유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말투 표정 자세 몸짓 모든 것을 신중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지요결을 복습 하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직접 주민을 대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사업을 구상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절과 실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중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양분 삼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과의 간담회 “주민 초대하기”

경로당 회장님을 초대해 작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번 만남이 좋지 않게 끝난 것도 있고, 아직 같이 계획을 논의해야 할 것이 남아 있으니 경로당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업 당일의 시나리오도 적어보고, 간담회에서 할 질문들을 눈으로 외워간 후 간담회가 열릴 행복실로 이동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차 티백과 다과를 준비하고, 이해를 도울 시각 자료를 제외한 노트나 필기구, 혹은 휴대폰은 꺼내두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저희의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진행표를 적는 그 순간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슈퍼바이저께서 도맡아 이끌어주셔서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필기나 기록하지 않고 회장님과 눈을 맞추며 경청 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만남에서 회장님이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이해가 더 잘 되었고, 대화의 공백이 없이 짧고 간결하게 간담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잔치에서 나눠 먹을 다과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회장님께서 같이 나눠 먹을 것으로 과일을 한 상자 준비하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주민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다 생각을 해오신 모양입니다. 사업 당일 시나리오를 저희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웃놀이할 때 옆에서 크게 호응해줘. 그래야 힘이 나.”라는 말씀에 저희는 벌써 으쌰으쌰 해봅니다. “내가 내일 어르신들 많이 오시라고 얘기할게. 시간 되는 분들은 다 오실 거야.” 하며 단단히 준비해 와야 한다고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간담회까지 응해주신 만큼 저희도 사업 당일 큰 호응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담회 후 슈퍼바이저께서 워크숍과 간담회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교실 같은 구조는 학습에 쉽지만, 토론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마주 보고 앉는 것이 대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주 보고 앉되 너무 긴 형태로 앉게 되면 수직 구조가 되므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 볼펜과 자료집, 메모 패드를 준비하면 좋고 사전에 공지해 자료를 읽어 오도록 하거나 처음에 읽는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하면서 어떤 기술을 써야지 하는 것은 욕심이며, 나중에 대화를 복기하며 자신이 어떤 기술을 활용했는지 생각해 보기가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자리를 살면서 꼭 한 번 이상은 만들게 될 텐데, 이 자료들을 잘 정리했다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준비 “빠짐없이 꼼꼼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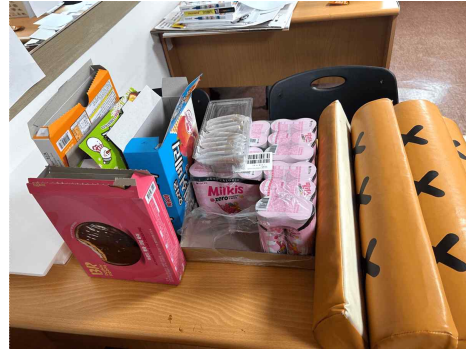
사업 D-1 “드디어 내일이다”

단기 사회사업 날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홍보물과 일정표, 준비물을 정리하는 정신 없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옷놀이 표에 붙일 재미있는 상품 칸과 이동 칸을 만들었습니다. 상품 칸에 말이 멈춘다면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이동 칸에 멈추면 한 칸 전진하거나, 후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옷놀이에서 재미 요소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지, 혹은 원하시는 요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업의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날 맛이 가랜드를 디자인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 글자씩 쓰인 가랜드는 기와 담장과 흙으로 만든 벽으로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현했고, 복 부분은 복주머니 그림을 이용해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벽에 뭔가 붙였을 때 자국이 남거나 벽지가 손상되면 곤란하기에 대신 가랜드의 그림을 크게 인쇄해 하나씩 들고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결과물이 쓰이지 않을 때는 속상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는 기쁨과 뿌듯함이 배가 됩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용처와 쓰임새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다각적으로 보는 능력이 생기고,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다음은 소품의 구비입니다. 먼저, 다이소에 가서 주민분들에게 상품으로 드릴 수면 양말과 양말을 담은 봉투, 옷놀이에 사용할 말과 꾸밀 색종이 등 정해놓은 예산에 맞추되, 부족하지 않도록 양손 가득 삽니다. 사다 보니 시간이 모자랐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계획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나눠 먹을 예정인 다과를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잔치를 위해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후원자들께서는 다과를 준비해주셨으며, 동장님께서서는 빵을 준비해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전에 간식 얘기를 회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간식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더 나누다 보니 사업의 의도와 잔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다과나 과일 같은 간식이 꼭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흔쾌히 본인이 과일 한 박스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잔치가 풍족해졌습니다. 잔치가 잘 진행되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짐과 동시에 더욱 주민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다과를 구매하기 위해 간 이마트에서는 어르신들의 취향을 고려해 간단한 과자와 약과를 사 들고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 온 물품을 옮기고, 그 물품은 꼭 사진으로 찍어둬야 한다고 하셔서 물품을 모아 전체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사진과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시나리오를 함께 읽어보고, 내일 시작할 사업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일에 해야 할 역할을 정하고, 대비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과 마음의 대비를 완벽히 마치려고 합니다.



사업 당일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잔치 당일입니다. 복지관에 출근하면서부터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는데, 직접 주민분들과 계획해왔던 활동이라 그런지 부담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물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업에 필요한 옷놀이와 옷놀이 판을 준비하고 옷놀이 판에 한 칸 더, 선물 칸 등 재미 요소를 넣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나눌 것들도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지역의 후원자분들도 먹거리를 많이 준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을에 소문 내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기꺼이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챙겨온 상품들을 포장하고 간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관장님이 들어오셔서 선물을 보시더니 선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글이 쓰인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셋 다 감탄했습니다. 선물을 보면서 어딘가 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어딘가 부족했던 것인지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면 소소하지만,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이런 디테일이 사업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빠르게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 문구를 제작하고, 종이를 뽑아 풀로 붙였습니다. 어색하지만 꽤 귀여운 선물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관장님은 “옷놀이 판은 미리 경로당에 가져다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며 옷놀이 판과 약간의 다과를 미리 가지고 내려가셨습니다.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다과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잘 준비해보겠다고 당차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진행문과 포스터를 뽑아 게시했습니다. 게시하려고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반겨 주시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좋았지만, 더 잘 해야겠다는 긴장도 같이 느꼈습니다. 사업 준비를 끝내고 준비된 것들을 보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준비가 헛되지 않게 사업을 잘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만들다 보니 저희는 참여자 수가 적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혹시 참여자가 너무 많았을 때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렇게 많이 오시겠어”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준비가 빨리 끝났습니다. 장수식당의 배식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김도현 실습생은 보람실에 남아 못다 한 준비를 끝내고 박소윤 실습생과 이수인 실습생은 장수식당 배식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장수식당에 투입되어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얼굴을 아는 어르신들에게는 오늘 경로당에 오시는지, 웃놀이하러 오시는지 은근슬쩍 여쭙볼 생각이었습니다.

봉사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앞치마를 맨 뒤 각자 위치에서 배식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일과가 돼서 봉사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주로 국 담는 걸 보조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식판을 가져다드립니다. 장수식당에 매일 나오면서 팀워크가 생긴 것 같아 무지 기분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면 이제는 누가 안 오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주 뵈었던 어르신들도 보였습니다.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조금 이따 경로당에서 또 뵈자고 수줍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로당 회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장소만 달라져도 얼굴 아는 분들을 마주치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식사를 마치시고 여기저기 주민분들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옆에서 들어보니, 웃놀이 한 판 하러 경로당으로 내려오라고 홍보 중이셨습니다. 괜히 다가가 기웃거리며 주민분들에게 얼굴도 비쳤습니다. 구경이라도 하러 오시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원봉사자께서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오늘 뭐 하는 거야?”라며 다가오십니다. “오늘 저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랑 웃놀이해요!” 하고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응원을 얻으면서 장수식당을 나갔습니다.

사업 진행 “결전의 날”

점심을 먹고 마지막 준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되지 않도록 기다렸다가 12시 55분쯤에 경로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손 가득 준비물을 들고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소파를 가득 채운 어르신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와주셔서 기쁜 마음과 역시 경로당 회장님의 홍보 능력은 대단하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주민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과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과자, 떡, 꿀, 두유...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입니다. 접시에 예쁘게 나눠 담고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도중에 실습생들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처럼 같이 잔치하려고 왔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대답을 듣고 어르신들은 웃으면서 재미있을 거 같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멀리서 보니 정말 잔치 분위기가 났습니다. 옷놀이는 미리 담요와 옷을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형 옷놀이는 못쓰게 되었지만, 주민분들이 작은 옷을 더 선호하신다면 거기에 맞추어 줄 아는 것도 사업 진행자의 태도라고 생각해 판과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작은 기본 옷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자기소개하고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전부 앉아계셔서 팀을 구성하기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나서서 옷놀이 참여자를 구해주셨습니다. “자 옷놀이할 사람 나오세요! 언니 옷놀이 한판 하자!”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을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난감해 속으로 어쩔 줄을 몰랐지만, 최대한 태연하고 뻔뻔하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자, 회장님께서 “이제 시작해 봐!”하고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회장님이 큰 목소리로 집중하라고 진행을 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덕분에 김도현 실습생이 차분하게 주민분들에게 저희의 소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습생들이 차례대로 인사를 드리자, 주민분들의 큰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도현 실습생이 옷놀이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팀을 어떻게 나눠볼까요?”라는 질문에, 회장님께서 순식간에 팀을 정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아무래도 생각이 다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회장님은 모집한 인원을 보고 반으로 나누며 팀을 정해주셨습니다. 이수인 실습생과 박소운 실습생도 한 팀 씩 맡아 팀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팀의 이름을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아요!”라는 말에, 한 어르신께서 바로 “토끼~ 오리~ 이런 것도 되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좋다는 말에 한 팀은 소 팀, 한 팀은 오리 팀으로 이름을 정하고 말 색깔로 이름에 맞춰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옷놀이 첫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옷놀이를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무지 떨렸지만, 열심히 던져보자 다짐했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면서 중간중간 어르신들이 옷 던지는 모습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옷이 던져질 때마다 “걸이다~! 옷이다~!”하는 큰 소리의 호응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옷놀이 응원법도 알아갑니다. 회장님도 김도현 실습생과 함께 진행을 봐주셨는데, 전문가를 모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진행해주셨습니다. “말을 잡아야지! 여기로 가야지 이길 수 있어”라는 말 들에서 저번에 옷놀이 대회에서 3등을 한 멋진 실력이 보였습니다. 또 분위기가 살짝 처진다 싶으면, 바로 커다란 제스처와 농담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셨습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주민이 재미있게 옷놀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실습생이 옷을 던질 때마다 같은 팀 어르신들이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바로 모가 나왔습니다. “모다~!”하는 말소리와 함께 신이 나 어르신과 손뼉을 마주하고 방방 뛰었습니다. 같은 팀의 응원에 든든한 마음과 옷놀이의 매력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첫판은 소 팀의 승리였습니다. 작게 소리도 지르고, 손을 흔들며 세레모니도 했지만, 너무 소심한 몸짓이라 승리의 기쁨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흘금 보니 30분은 지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20분 정도가 지나있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시간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벌써 치우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습생들과 작게 상의한 후 “한판만 더요~”하고 즐겼습니다. 한 판만 더 하시죠? 하면서 여쭙보니 회장님도 다시 옷을 쥐시며 “한판 더해 그럼!”이라고 하시며 주민분들의 의지를 끌어올려 다행히 다음 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판도 전 판과 똑같은 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리팀 어르신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웃을 던졌습니다. “웃도 못 치는데 재미없다~” 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웃이 나왔습니다. 앉아서 구경하시는 어르신들도 놀라 박수를 치셨습니다. “게임은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지!”라며 좋아할 틈도 없이 소 팀에서 연속으로 웃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이겼다~” 하는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행을 보던 김도현 실습생이 웃을 던지는 어르신한테 “화이팅!”이라고 응원했는데 다른 어르신이 “왜 우리한테는 응원 안 해!”라고 말씀해주셔서 모두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르신에게 “화이팅!”이라고 응원하였습니다. 선물 칸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선물이다!”하고 하시면서 환호했습니다. 웃놀이가 끝나고 이긴 팀 어르신들은 “이겼다!”라고 외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실습생들도 즐거웠습니다. 결과는 웃놀이의 신이 소 팀에 붙은 건지, 결국 두 번째 판도 소 팀이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패는 정해졌지만, 마지막 판은 보너스 판으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세 번째 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오리 팀의 우승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뒤로 한 칸 가야 하는 칸이 있었는데, 오리 팀이 몇 칸만 더 가면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 정도를 연달아 도만 나오는 바람에, 몇 번이고 제자리로 돌아오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웃음이 터졌고 저도 너무 놀라고 웃겨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기획한 이동 칸이 주민분들에게 재미 요소로 느껴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경기가 끝났는데도 경로당 안은 여전히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웃놀이를 즐겼나 봅니다. 승리한 소 팀에 박수를 보내며 웃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웃놀이가 끝나자마자 동장님께서 경로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양손 가득 주민분들에게 나눌 (지역에서 후원해주신) 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미 배부르게 다과를 먹은 상태라 빵을 더 먹지는 못했지만, 다 함께 인사를 나누고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잔치에 대해서 회장님이 동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장님은 “오늘 재밌는 시간을 보내신 것 같네요.”라고 하며 경로당에서 느껴지는 열기로 웃놀이하는 모습을 떠올리신 것 같았습니다. 주민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웃놀이를 정리하고 오늘 모인 주민분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수건과 수면 양말 중의 하나를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하는 걸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잔치를 진행할 때는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다행히도 선물이 괜찮으셨는지 “수면 양말 예쁘다. 필요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할 생각을 했어? 마음에 들어요.”하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르신분들의 반응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선물을 나눠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하던 찰나, “얼른 앉아서 떡 들어요. 오늘 웃놀이 하느라 고생 많았네.”라고 하며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 옆에 앉아 함께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 웃놀이 재미있으셨어요?”하고 여쭙보니 “재미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노는 게 얼마 만인지 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놀면 어떨까요?”하고 여쭙보니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같이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 같아 다행이면서도, 앞으로도 많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회장님께서도 소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왔을 땐 똑같은 것만 물어보고 답답했지. 근데 또 잘 준비해서 와서 오늘 잘했어. 재밌었어요, 나도.”하고 이야기해주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진작에 참여하거나 도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활동 기획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더 발전시켜서 다시 이러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활동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좋은 얘기만 나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쉬운 점이나 피드백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회장님은 사업 구상 중 반복적인 대화와 대화 중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업을 진행 하면서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시고 교류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룬 거 같아 좋았습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한 후에 어르신들과 교류하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끝난 후 "놀이주려고 와줘서 고마워" "내일에도 봐" 등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말들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셨습니다. 실습 초반에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과 모여 앉아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양옆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이 “아유~ 예쁜 것” 하면서 박소윤 실습생을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잔치를 통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 실습이 일주일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민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내일은 복지관에서 또 설날 행사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또 놀아요!”라는 말씀을 드리며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시원한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드디어 끝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2주 반 동안 주민분들과 만나 인사하고, 의논하며 준비했던 잔치가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하루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과 보낸 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내일 복지관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 겹 더 추억을 쌓을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사업 평가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사업이 끝나고 슈퍼바이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슈퍼바이저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내내 곁에서 지켜 보시며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주셨고, 저희가 웃놀이에 집중하느라 주변 주민분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런 주민분들과도 대화로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슈퍼바이저께서 아쉬웠고 고쳐야 하는 점과 잘했던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동료 실습생들끼리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짓과 손짓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저희 일에 집중하느라 서로의 얼굴과 행동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며 실습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실습생들과 눈이 맞지 않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미리 그런 걸 정하고 투입돼야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선물을 드릴 때 아쉬운 점이 또 있었습니다. 선물은 양말과 수건이었습니다. 수건은 복지관에서 준비해주신 거라 수량이 넉넉하였지만, 양말은 사업비에서 구입한 것이라 수량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서로 원활히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무리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잘하고도 마무리가 어설피면 그 사업은 어설피 사업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정돈하고, 무사히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애매했고, 각자 답소를 나누고 계실 때 한 명이 말을 꺼내면 말이 묻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슈퍼바이저와 동료 실습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혼자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마무리를 위한 대비를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첫 실습이고, 충분히 잘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무사하고, 나눌 먹거리와 물건도 잘 나눴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소감을 공유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감에 안도감을 느끼며,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실습생들끼리 사업에 대해 평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습생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공통된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좋았던 점은 주민들과의 교류, 잔치 분위기 형성,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고, 아쉬운 점은 적절한 진행 부족,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로당 회장님께서 아쉬운 점을 얘기해주셔서 실습생에게도 다시 사업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점을 골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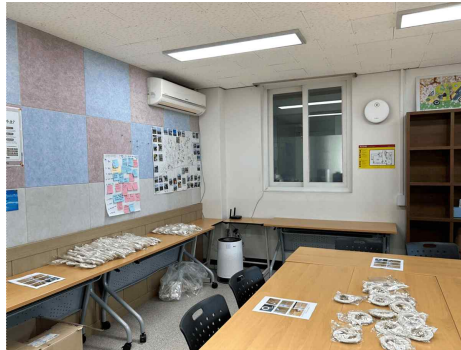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중간에 오해도 있었지만, 다시 대화하면서 사업 구상을 마무리하고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통해 서로 친해지면서 좋은 사업이 된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경험 삼아 앞으로도 싶다고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이후 이야기 “설날 행사 보조: 가치까지 설날은”

설날행사 투입 첫째 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

오늘은 복지관에서 설날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1층에서는 포토존을 만들어 설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2층에서는 액운을 막아준다는 마크로메 도어벨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보라고 주신 키트로 열심히 연습해왔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니 예쁘고 의미도 깊어서 주민분들과 얼른 같이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9시 30분쯤부터 미리 설명을 듣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활동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종과 리본을 달기 전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준비했습니다.



10시가 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수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만든다던데?” 궁금한 목소리로 문밖을 기웃거리십니다. 반갑게 인사를 드리며 명단을 먼저 작성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만들기 설명서를 읽어보십니다. 옆에다가 함께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걸 문에 달아놓는 도어벨인데 액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준대요. 복 많이 들어오시라고 준비했어요.”라고 설명하니 웃으면서 “정말요? 나 복 많이 받네. 학생도 복 많이 받아요.” 하고 덕담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과 리본을 함께 달고 마지막으로 자석이 달린 고리를 걸어주면 완성입니다. “아이 예쁘다. 고마워요” 라는 말씀에 “저도 감사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어르신이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돼요?” 다른 어르신이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들어오면서 만들기 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재빠르게 키트를 들고 가 설명하면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받을 복이 넘쳐나네. 나누면서 살아야지. 복 많이 받아요.”라며 저희에게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주민분들과 주고받으니 행복합니다.

정리하고 있으니 뒤에서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장수식당에서 자주 뵈는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머리하고 오셨네요? 예쁘게 잘 되었어요.”라고 말을 건네니, “머리하느라 늦을 뻔했어. 급하게 뛰어오느라 힘들어 아주.” 하고 숨이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대화를 나누고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미신 같은 거 안 믿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안 믿어요! 그래도 복은 많이 받으세요. 도어벨도 문에 달아두시고요. 생긴 건 예쁘죠?” 하고 대답하니, “예쁘긴 하네. 만들기도 재밌어요.” 하고 고이 접어들고 가셔서 웃음이 납니다. 어떤 한 분은 저희에게 “고마워요. 복 많이 받고 원하는 거 다 이루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라니 정말 과분한 덕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별말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돌아오면 정말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오실까?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주민분이 오셨습니다. 혹시 기다리시진 않을까 하고 다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비해줬던 마크라메 절반이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투입이 끝나고 보람실로 돌아가 보려던 찰나, 슈퍼바이저께서 들어오셔서 “개인정보, 개인정보”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주민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명단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책임이 있으니 저희가 책임지고 보관해야 합니다. 분명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행사를 돕더라도, 해야 할 일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단을 보람실에 가져다 두고, 정말 오전 투입을 끝마쳤습니다.

한편 김도현 실습생은 주민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는 활동에 보조를 맡았습니다. 주로 명부 작성을 도와드리고 사진을 담아드리는 봉투에 새해 인사를 적는 꾸미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진행 하면서 주민분들이 오시고 “뭐 하는 거예요?”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설날 사진 찍어드리려고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진을 찍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둘씩 찾아오셨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주민분들은 최대한 예쁘게 찍어주시길 바라셨습니다. 머리띠도 추천해드리고 거울도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꾸미는 것을 보조해드렸습니다. 또 사진을 찍으실 때 “예뻐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등 주민분들에게 말해드렸습니다. 주민분들이 칭찬을 들으실 때마다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민분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듯해지는 게 이게 행사의 묘미구나 싶었습니다.



주민분들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신 주민들은 “잘 나왔네”, “사진 찍을 줄 알았으면 예쁘게 하고 올 걸 그랬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다 좋아하시는 반응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구경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사진을 나눠드리면서 설날에 뭐 하시었는지도 물어보았더니, 대부분의 주민분은 보통 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주민분이 “심심한데 대화도 해주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민들과 교류하고 감정을 나누는 거 같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조를 경험으로 내일도 설날 잔치 보조에 더욱 힘을 쓰고 더 많은 주민분과 교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날 잔치 투입 둘째 날 “이제는 익숙해진”

오늘은 설날 잔치 투입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과연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지 두근두근 떨립니다. 어제 오후에 열심히 만들어 놓은 마크라메도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옹기종기 기다리는 모습이 제법 귀엽습니다. 저 안에 저희가 만든 마크라메도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뿌듯하지만 참 이상합니다. 저희가 만든 마크라메가 주민분들의 집 현관에 매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래오래 매달려 액운을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셔서 오늘은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신 주민분들을 세면 두 손가락에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크라메가 많이 남을 것 같아 아쉽지만, 대신 오신 주민분들이 어떻게 마크라메를 만드셨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더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민분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주민분들은 오고 가실 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주로 “새해 복 많이 받고, 하는 일 전부 잘 풀리고” 같이 새해를 맞아 한해를 대비하는 덕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 어깨도 토닥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단순한 투입 업무에 불과하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한참 주민분들이 안 오셔서 만들기 키트를 만지작거리니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는지 남자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 1층에서 사진은 찍으셨어요?”하고 여쭙어보니 “그럼 찍었지”라며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엄청 멋있게 나오셨어요.”하고 엄지를 든 제 모습을 보시곤 멋쩍게 웃으시면서 “듣기 좋은 말이네. 이것도 문에 잘 걸어둘게요.”하시면서 도어벨을 잘 담아 나가셨습니다.

식당 앞에서는 식사를 다 하신 주민분들이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복지관에서 준비한 키친타올과 설날 맞이 선물을 나눠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식당 앞이 사람과 물건으로 붐비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오지 않아서 쉬고 있었던 실습생들과 잠깐 같이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키친타올과 선물을 들고, 나오시는 주민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명절 잘 보내세요” 같은 말을 하며 두 손에 들린 키친타올과 선물을 건네면 주민분이 고개를 꾸벅하고 챙겨 가십니다. 하나하나 선물을 전달하며 얼굴을 보고, 명절 인사를 드리면서 이 행사가 마음을 나누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현 실습생은 전날과 같이 주민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는 활동에 보조를 맡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날보다 주민분들이 적게 오셨지만 한 분씩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주민이 삼척에서 오셨다고 하셔서 “저도 학교 삼척에서 다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네.”라고 주민분께서 얘기해주셨습니다. 주민분에게 사진을 찍어드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류할 수 있었고 주민분께서 마지막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시면서 악수하셨습니다. 실습하면서 대화를 가장 원활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보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날보다 활동 보조가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전날에 사업 보조는 첫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오늘 진행한 활동은 사진 찍는 법, 응대하는 법 등 전날에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어서 유익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주민분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서둘러 뒷정리를 하고 고생했다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큰 명절을 맞아 들뜬 듯 보이는 주민분들과 많은 대화를 느꼈습니다. 일방적이고 짧은 대화였을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앉아계신 주민분과 꽤 오래 대화를 나누는 적도 있었습니다. 마크라메를 만들며 주민분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앞으로의 실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소양에는 벌써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께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을 배웠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설날 행사는 처음이었는데, 많은 주민분과 새해 인사를 나누니 두 배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 나누기 “편지로 전하는 마음”

실습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저희는 실습과 단기사회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분은 역시 경로당 회장님이십니다. 첫 만남 때부터 저희를 너무 반겨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중간에 오해가 한 번 있었지만, 간담회로 원만하게 풀었고, 느낀 점이나 아쉬웠던 부분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분이려 더욱 고맙습니다. 특히 웃놀이할 때 저희보다 더 높은 텐션으로 잔치가 지루해지지 않게 열정적으로 진행해주시던 것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편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말로 하기 부끄러운 마음도, 글로 써 내려가면 어쩐지 수월하게 표현됩니다. 저희는 저희의 마음을 편지에 고스란히 녹여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회장님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단기사회사업이 끝난 후까지 회장님이 어떤 존재였고, 그 많은 관심과 도움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경로당 문을 두드리고, 유리문을 밀어 들어갑니다. 회장님 계시냐는 물음에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회장님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는 편지를 건네드리며 여기까지 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습이 끝나서, 미리 감사인 사 드리려고 왔어요.” 회장님은 아쉽다는 표정으로 “그래? 쓸쓸해서 어떡해. 또 올 거지?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와. 도와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쓸쓸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 기간 내내 오며 가며 마주친 얼굴들인데, 실습이 끝나면 보지 못한 다니,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봉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일로 또 올지도 몰라요!” 김도현 실습생의 말에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이웃일 겁니다. 다른 행사의 일로 마주칠지도 모르고, 아니면 길 가다 만나거나, 우연히 들린 마트에서 만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때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이고,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역할이니까 말입니다.

담소를 조금 더 나누다가, 저희는 이 순간을 기념할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을 쭉 뻗어 사진을 찍는데, 역시 셀카만 한 게 없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브이 자를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웃습니다. 이 사진이 오래오래 남아 나중에 봤을 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추억이 되는 것이겠지요. 카메라가 찰칵, 하고 찍히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해 주시는 회장님과 주민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편지, 함께 찍은 사진과 나누는 이야기가 주민분들에게 따뜻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평가

배움, 소망, 감사 평가

배움

명절 잔치를 벌여봤습니다. 주민들이 웃놀이하며 서로 대화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 안이 웃음소리와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주민들을 보니 “이게 바로 명절이구나”하고 느껴집니다.

이웃들이 모여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잔치나 행사는 이웃 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과 같이하는 즐거움이 크다는 걸 배웠습니다. 거창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 밥 한 끼 먹고, 운동 삼아 웃놀이 한 판, 서로 가져온 간식들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 된 것처럼 어울렸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단기 사회사업을 하며 저희도 주민들에게 많은 걸 얻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많은 주민을 만났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단기 사회사업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서로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재밌는 활동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하고, 맛있는 다과들을 얼른 한 입이라도 더 먹으라고 하는 얼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을 보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살아가게 돕자는 사회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논의하면서 사업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멋있기도 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응원하고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잔치 사업을 통해 잔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잔치는 경사가 있을 때만 하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고, 나누는 모든 활동이 잔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망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금처럼 심심하면 하나들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 가져와서 나눠 먹고,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안부도 물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희망에 귀 기울이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아 활기가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더욱 시끌벅적하고 재밌는 잔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

잔치를 같이 기획했던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의미를 같이 알아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더욱 재밌는 잔치가 될 수 있었고 주민들이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잔치 기획에 앞서서 얘기해주시고 사업을 지원해주신 경로당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잔치를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료 실습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함께하는 잔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잔치를 이뤄주신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잔치를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고 주민들끼리 서로 만나고 배려하고 어울리는 잔치를 만들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 잔치 이루기

맺음말

이 사례집을 작성하며, 단기사회사업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쳐온 모든 실습 활동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과 확실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보니 기억이 훨씬 더 잘 떠오릅니다. 글을 읽으며 이뻐 이랬지, 그때 그랬지하며 곱씹어보게 됩니다. 동료 실습생의 글도 한 번씩 보고, 동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보니,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먼 곳으로 왔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이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처음 실습 일정을 봤을 때,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라졌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뻘뻘한 일정에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흐르는 어색하고, 텅 빈 공간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따듯한 바람이 머무는 방 안을 둘러보면, 우리가 남겼던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첫 주에 우리를 괴롭게 했던 복지요결 마인드맵은 커다란 이젤패드 네장을 붙여도 모자랄 만큼 꽉 찬 거대한 마인드맵이 되어있고, 주변 벽에는 우리가 직접 작성한 워크숍과 단기 사회사업의 시나리오, 이슈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워크숍 자료까지 우리가 남긴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방안에는 온기가 감돌고, 어색한 침묵 대신 심심하면 이야기 나누는 동료 실습생들이 있습니다.

처음 주민 만나기라는 일정을 봤을 때는 겁도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아무 친분도 없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자식으로 벼랑에 떨어져 강하게 기르듯이, 한번 해보고 나니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주민과 대화하는 것도 전과 다르게 조금 더 편해졌고, 말도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노력은 단기사회사업보다 설날 잔치 투입 활동 때 빛을 발했는데, 그때 가장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올바른 대화 방식을 배워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까지,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실습 전보다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큰 산을 넘어왔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슈퍼바이저들과 동료 실습생들과 주민분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모든 길이 하나로 모이듯, 어찌면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을 이 단기사회사업 하나에 전부 쏟아부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애정과 열정을 들여 제작한 단기사회사업은 제 인생에 손꼽힐 정도로 큰 사건이자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직도 사업이 끝났을 때의 그 후련함과 안도감과 허전함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기획부터 모집까지 우리와 주민분들이 함께 만들어나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며 “이것쯤이야”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4주간의 실습 마무리를 무사히 완수하게 된 것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배운 내용을 잘 갖고 닦아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하며 느꼈던 모든 것들을 밑거름 삼아 대화와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기고, 앉아있기보다 발로 뛰어다니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흐름에 발맞추는 사회복지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난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안부를 주고받으며 동료이자 지역주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25. 2. 6.(목)
김도현, 박소윤, 이수인

#실습 지도자 의견

중간에 설 연휴가 있어서 더 길게 느껴진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많았던 세 분이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동안 실천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운 지식과 이상과 가치를 앞으로 자신이 세운 올바른 사회복지실천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할 때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더불어 살기'가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생태로 들어가 헤아려보고, 실천 거리를 찾고, 방향을 설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 분의 선생님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이 실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천 현장에서 동료 사회복지사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부록

후배 실습생과도 글을 통해 만나고, 생각을 나누고자 본문에 수록하지 않은 그 외 주요 활동도 첨부합니다.

이슈 워크숍

“환경실천이 사회복지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환경 악화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환경오염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적 약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경오염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냉·난방의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때 기후 약자는 냉·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낙인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상기후로 홍수가 나 반지하가 침수되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후 약자는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그린러너”사업이 있습니다. 기후 약자를 대상으로 효율 등급이 떨어지거나 오래된 전자기기를 교체해주고, 거주지를 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중화된다면 그것도 훌륭한 환경실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 캠페인을 열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는 캠페인으로 지역주민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활용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활동을 하며 재활용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플로깅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쓰레기를 주우며 걷고, 돌아다니는 활동으로 마을에 애착이 생기고, 주민들끼리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주민 조직화로 모임 형성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행사 잔치를 하는 이유?”

- 조력자의 역할 주선하기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선을 통해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그들을 자원으로 활용해 관계 빈곤 상황에서 ‘사회다움’과 ‘사람 다음’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행사와 잔치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 행사나 잔치로 사람들 간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 되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 주민의 재능을 발휘하고, 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화·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상자와 같이 기획하고 참여한다면 지역 주민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지역사회와 주민 사이에 연결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민들이 함께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공통된 생각은?”

-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주민들끼리 관계를 강화하며, 여기를 즐기기 위해 행사나 잔치를 연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긍정적인 영향:

- AI를 이용해 전산처리, 회계업무, 서류 작성을 하면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할 시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책상에서 하는 서류 업무가 편해지고, 주민을 만날 시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AI를 활용한 대화 서비스로 주민의 가정에서 위험 감지, 여가 활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될 것 같습니다.
- AI를 활용한 상담 시스템으로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노인 돌봄 분야에서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 상담, 재활 등의 사회복지 인력이 AI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 돌봄 분야에서 활용될 때, 인간 존엄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기술적응이 어려운 계층이 소외될 것 같습니다.
- AI가 사람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 기회를 뺏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AI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기후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2025 동계실습 단기사회사업

가치, 같이 설날은

-설날 잔치 프로그램-

일시	1. 22(수) 13:00~15:00
장소	복지관 내 3주공 경로당
일정	웃놀이 및 소감나누기
참여 인원	주민 22명

고맙습니다
함께 해준 지역 주민분들

경로당 회장님, 장수식당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마을활동가 선생님, 후원자 선생님, 동장님,
복지관의 모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잔치를 같이 즐겨주신 주민분들

잔치 진행 과정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고민해보고, 웃놀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웃놀이를 하고 다과를 나눠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p>주민 만나기 주민에게 묻고, 논의하고, 부탁했습니다.</p>	<p>잔치 진행 웃놀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p>
<p>물품 준비 감사함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p>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습생 일동-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 잔치 이루기